

김성일 소설의 기독교 세계관 연구*

권경미**

논문초록

본고에서는 한국기독교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김성일 소설의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했다. 김성일의 초기 소설인 『땅끝에서 오다』와 『땅끝으로 가다』를 통해 한 작가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한국적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잘 녹아 있기 때문에 작가의 신앙관과 한국적 기독교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성일 소설을 통해 한국적인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했다.

김성일의 소설 『땅끝에서 오다』와 『땅끝으로 가다』는 다국적 기업의 비기독교인인 주인공이 실종된 동료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기업 활동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80년대가 배경인 김성일의 소설에는 비기독교인의 ‘하나님-기독교’ 알아가기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잘됨과 기업적 차원에서의 복 그리고 민족적 차원에서의 회복을 희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잘됨은 가족의 행복과 건강 회복, 개인의 불안 심리 치유 등과 같은 기복이 바탕이다. 또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근대화 경제성장 개발론을 앞세워 기업의 승승장구를 기독교문학의 핵심에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가면, 예수를 믿으면 다 형통하다’라는 복락중심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비기독교인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다분히 성공과 잘됨이라는 전제는 신앙에 입각한 철저한 자기 성찰이 배제된 측면이 강하며 이는 김성일이라는 작가의 기독교적 특징일 수도 있지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면서 한국기독교문학의 특징 중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김성일 소설을 개인적인 차원, 기업적 측면, 민족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신앙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한국기독교 문학, 김성일, 기복신앙, 성장, 치유, 회복

* 본고는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임. 본고는 우리어문학회(2016년 2월 26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신여자대학교 문화내러티브 전공 조교수

2016년 5월 9일 접수, 6월 1일 최종수정, 6월 13일 게재확정

1. 한국 기독교와 ‘한국기독교문학’

한국의 기독교는 1884년 6월 19일 고종으로부터 감리교선교사 맥크레이(R.S. Maclay)가 선교허가를 받는 것을 시점으로 1984년에는 한국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2016년인 오늘에는 132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볼 수 있는 100년을 넘어서면서 다른 어떤 종교가 이루지 못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기독교 신자 수만 해도 그 신도 수가 꾸준히 감소한다고 하지만 2003년 통계청 기준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롯해 기독교 관련 종교를 믿는 인구가 종교인 중 과반수를 넘는 50.3%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수적인 위력을 떨치고 있다.¹⁾ 굳이 통계 자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회·문화·정치·경제·교육 등 사회 분야 전반에서 활발하게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히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한국 기독교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종교이다.²⁾ 한국 기독교가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기독교 신자 수의 우세뿐만 아니다. 소위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낸 이들 중에서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현실에서 손쉽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경우 종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언론을 통해 수상의 기쁨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연예인을, 골 득점의 기쁨을 기도 세리머니로 하는 축구 선수를 언론을 통해 손쉽게 접하게 되고 이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그들의 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종교에 머물지 않게 된다.⁴⁾⁵⁾

1)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9%이며 그 중에서 불교 47%, 개신교 36.8%, 천주교 13.7%, 유교·원불교가 각각 0.7%, 0.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3년 종교 활동 참여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DA011&vw_cd=MT_ZTITLE&dist_id=D21D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jd=&conn_path=E1).

2) 2014년 갤럽 조사에서의 불교 24%,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 28%(개신교 21%, 천주교7%)를 보아서도 급감하는 종교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다. <종교인 비율 10년 전보다 감소>, 『연합뉴스』 2015. 2. 12.

3) 2012년 4·11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40%가 기독교 신자이다. 『크리스천신문』 2012. 4. 12.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8호, 2012, 7면에서 재인용.

4) 1999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이지만 우리나라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35.4%(기독교 25.1%, 천주교 10.3%)가 기독교 관련 종교를 19%가 불교를 믿으며 사무직의 경우 27.5%(개신교 19.9%, 천주교 7.6%)가 기독교 관련 종교를 21.2%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인구 중 12.3%(개신교 10%, 천주교 2.3%)가 기독교 관련 종교를, 36.6%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1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요한3서 1장 20절의 말씀을 매우 강조한다. 이에 영혼의 잘됨이 육신의 강건함으로, 범사의 형통이 영혼의 복으로 직접적인 상관성을 획득할 여지를 남겨 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형 교회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강조한다.⁶⁾ 그러다 보니 한국기독교는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복을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된다. 이에 한국의 기독교문화에는 구원의 능력의 영성 영역과 사회적 성공, 부나 명예의 획득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기독교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기독교문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우리 문학 안에서 기독교와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기독교문학과 관련한 연구 주제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바탕이 된 기독교문학, 우리 문학 속 기독교 수용 양상, 기독교문학의 다원화 등 매우 다양하다(김세령, 2012: 8). 먼저 우리 문학 속 기독교 수용 양상은 문학 안에서의 기독교 사상 반영 등이 중심이 되면서 주로 개화기 문학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양진오, 2004; 김병학, 2004; 조경덕, 2010). 이들 논문에서는 기독교의 문학 속 수용을 다루면서 토착화·민족화되는 과정까지도 포착하고 있다. 특히 조경덕은 개화기 기독교 수용이 곧 민족적 계몽운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문학 안에서 읽어내고 있다. 김병학 역시 개화기 때 기독교는 서구 문명개화의 근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포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문학에서의 기독교 수용 양상은 개화기 중심, 문명개화의 계몽적 성격을 띠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기독교 관련 문학 논의인 기

로 조사됨으로써 직업에 따라 종교 인구 비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 53.6% 종교 있다>, 『연합뉴스』 2003. 6. 17.

5) 불교를 비롯해 반기독교 단체에서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기독교적 발언이나 행위는 공적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드러냄으로써 종교적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도 세리머니 안 돼” 불교-기독교 ‘날선 공방’>, 『문화일보』 2010. 3. 10. <기독교 연예인 “하나님께 감사” 소감 왜 줄어드나 했더니... 불교계, 방송사에 ‘자제’ 압력>, 『국민일보』 2016. 2. 2.

6) 물론 형통함과 건강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초대형교회가 이를 구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잘됨과 형통함이 곧 영혼 구원 내지 영혼의 형통함으로 오인하게 하는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독교문학의 다원화⁷⁾는 1990년대 이후 기독교문학의 다원화 양상의 일환으로 등장하면서 기독교문학 외연의 확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 범종교적 관점에서 신과 기독교를 다룬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김은국의 『순교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등을 기독교문학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상철(이상철, 1999), 차봉준(차봉준, 2008) 논의는 기독교문학의 외연을 지나치게 넓게 봄으로써 진정한 기독교문학의 정의를 흐리게 한다. 성서적 모티프를 차용했다고 해서 곧 기독교세계관을 투영한 문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독교문학이라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충분히 재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구원을 의미화하는 소설들을 기독교문학이라도 추켜세우는 것 역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영택은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을 논의함으로써 한국기독교문학의 포문을 열었다(전영택, 1959). 전영택은 성경-특히 시편과 욥기, 전도서 등-이야말로 그 어느 문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문학성을 지녔는데 이처럼 성경이 지니는 문학성은 기독교와 실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에 확보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상과 신앙이 분리된 한국적 상황에서 기독교문학이란 ‘회심’ 즉, “實在의 人格的인 神과의 深刻한 交渉”(전영택, 1959: 68)이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전영택이 언급한 ‘회심’은 기독교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성경이나 교회, 찬송을 통한 감정적인 감동이나 감흥을 넘는 것으로 이는 자아를 압도해서 실제적이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은 회심을 하게 되며 이것이 곧 기독교문학이 지녀야 할 핵심임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 김희보(김희보, 2010)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문학은 “헤브라이즘적인 것, 죽음을 응시하는 것, 나그네로서의 실존적인 것,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김세령, 2012: 13)이어야 하며 이때 크리스천 작가여야만 기독교문학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김희보는 절대자와 만남 이후 개인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인식하면서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야 하며 기독교문학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전영택과 김희보

7) 김세령(2012)은 『195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론 연구』에서 “기독교문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을 벗어나 기독교가 ‘아닌’ 문학, 기독교 ‘관련’ 문학을 기독교문학으로 분류할 수 없”(2012: 24)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는 종교문학의 일환으로서 기독교문학을 설정하려고 하는 일련의 연구 활동이 자칫 기독교문학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며, 희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세령의 논의를 수용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닌 문학’과 기독교 관련 문학 내지 종교문학 범주로서의 기독교문학은 전혀 다른 범주의 문학임을 밝히고자 한다.

의 기독교문학론은 기독교가 문학보다 훨씬 더 강조된다. 호교문학론은 아닐지언정 문학적인 미학적성마저도 올바른 기독교 사상 위에서야 의미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본고 역시 전영택과 김희보로 이어지는 정통 기독교문학론에 입각해서 기독교문학을 바라보고자 한다. ‘기독교’문학이라고 명명된다면 기독교적 세계관 위- 예수 그리스도와 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회심 그리고 목시적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의 문학이어야 하며 기독교적 사상 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기독교문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한국기독교문학론을 정리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論’이 ‘文學’보다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점이다. 한국기독교문학에 대해 나름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독교문학의 정의, 구분, 범주 등에 대해 논하지만 실제 이 풍성한 논의에 적합한 ‘문학’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기독교문학 논의의 맹점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기독교문학을 논할 때 논문 주제며, 논문의 방법론은 다를지언정 그 대상이 되는 문학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문학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독교문학 작품의 왜소함은 한국기독교문학 연구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김성일은 매우 반가운 작가이다. 김성일은 21세였던 1961년에 단편 『분묘』(『현대문학』)로 등단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는 <산문시대> 동인으로서 김현, 김승옥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었다. 김성일은 40세까지 작가로서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우중공업에 재직하면서 이사로까지 승진하는 등 작가면서 기업가적인 면모도 지녔다. 그러던 중 김성일은 그의 아내가 암 투병을 하자 모태신앙을 회복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이 지닌 작가적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1983년 3월부터 12월까지 『땅끝에서 오다』(홍성사, 1983.)를 『한국일보』에 연재했다. 추리소설 형식을 빌린 『땅끝에서 오다』는 본격적인 기독교소설을 표방하고 있으며 종교문학-기독교소설치고는 드물게 장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등의 대중적 사랑을 톡톡히 받았다.⁸⁾ 뿐만 아니라 1983년 12월에는 <제2회 기독교 문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교계에서도 그 기독교적 색채를 인정받았다. 그만큼 『땅끝

8) <종교인이 쓴 책 장기 베스트셀러 많다>, 『동아일보』 1991. 10. 8. 『땅끝에서 오다』는 초판본 발행 후 10년 동안 57쇄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현재도 여전히 팔리고 있는 장기 베스트셀러이다. 신문 연재에 출판분의 대중적 인기로 인해 이 소설은 영화감독 배창호가 영화화하도록 촬영지 로케이션까지 마쳤다. 다만 실제 영화화되지는 못했지만 배창호·이명세 감독이 직접 현지를 답사할 정도로 진척이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도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킨 소설이다.

에서 오다』는 대중성 차원에서나 기독교적 세계관적 차원에서도 모두 한국기독교문학을 이야기할 때 의의 있는 소설이다. 『땅끝에서 오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김성일은 1985년 그 후속작인 『땅끝으로 가다』(홍성사)를 집필했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다만 김성일 소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실적이 많이 누적되지 않은 상황이고 김성일에 대한 연구 역시 『땅끝에서 오다』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김성일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 숫자가 적을지언정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구축해 낸 작품으로 인정한다(김봉근, 1997; 김순덕, 1997; 김종배, 2002; 최은주, 2005; 윤영수, 2006; 조경덕, 2010). 이들 연구는 김성일이 삶 속에서 만난 기독교적 체험이 소설에도 반영되어 타락된 인간에서 기독교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본다. 성경 말씀을 통해 타락된 인간이 회복된다는 것을 네 편의 연구들은 공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성일에 대한 호의적인 연구 방향은 김순덕이 김성일의 소설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을 별다른 비판 없이 계속 반복, 재생하는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왜 김성일의 소설이 긍정적인지, 타락의 인간이 어떻게 구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은 채 이후의 연구들은 모두 기독교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땅끝에서 오다』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다 더 엄정하게 이 두 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그 외연인 확장된 종교문학으로서의 기독교문학이 아닌 ‘정통 기독교문학론’에 입각해서 김성일 소설이 기독교문학으로서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땅끝에서 오다』(김성일, 1983)와 그 후속작인 『땅끝으로 가다』(김성일, 1991)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⁹⁾

II. 소설의 추리기법과 개인의 자각: 감추인 보물과 풀려버린 암호

『땅끝에서 오다』와 『땅끝으로 가다』는 모두 추리소설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땅끝에서 오다』는 한국형 대기업 ‘리진물산’ 동경지사예 근무하는 ‘임준호 대리’는 중요한 기업 프로젝트 문서를 가지고 동경으로 오는 ‘이세원 부장’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9) 김성일의 소설인 『땅끝에서 오다』와 『땅끝으로 가다』두 편을 통해 김성일의 기독교적 세계관 전체를 단언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성일의 초기작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을 분석할 것이다.

공항에 마중 나갔지만 ‘이세원 부장’이 비행기에 탑승조차 하지 못한 채 실종된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임준호는 실종된 이세원 부장 대신 비밀 프로젝트 문서를 서울→파리→트리폴리→리비아로 전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게 된다. ‘임준호’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의 동창이자 입사 동기인 ‘이세원 부장’에게 일평생 뒤쳐지는 굴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세원’ 대신 맡게 된 업무로 그의 비밀을 밝혀내는 한편 그의 소재도 함께 찾기로 결심한다. 임준호는 업무 수행하는 내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으로부터 잦은 위협과 습격을 받는다. 처음에는 기업 프로젝트의 그 비밀스러운 중요성 때문에 여기지만 차츰 그들의 목표가 ‘이세원의 가방과 성경책’임을 알고서는 본격적으로 이세원의 성경을 통해 그의 비밀을 하나씩 추적해 간다. 그리고 마침내 ‘리진물산’의 리비아 진출이 이세원의 기독교적 신앙관에서 출발한 창조적이면서 도전적인 아이디어였으며 이세원의 그 탁월함을 탐낸 이스라엘-북한 사이의 힘겨루기로 이세원이 위협에 빠지게 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임준호는 이세원을 추적하면서 접하게 된 성경책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후속작인 『땅끝으로 가다』는 ‘리진물산 동경지사’의 ‘요코하마 겐지로’의 시점의 소설로 전작의 임준호의 활약 2년 뒤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이세원 부장의 실종건이 미해결인 상황에서 임준호마저 실종된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요코하마 겐지로’는 또 다른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 경제특구를 담당하는 ‘첸 치야’를 만나기 위해 홍콩에 가지만 그 전에 급한 일로 예루살렘으로 떠난 ‘첸 치야’로부터 자신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요청받고는 새로운 여정에 오르게 된다. 그는 잠시 서울에 머무는 동안 ‘릴리아’라는 여성과 한 사람의 개인 정보 모두를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UUU 카드’를 개발, 보급하고자 하는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첸 치야’를 만나러 가는 여정에서 요코하마는 임준호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그를 추적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무국적 노예선을 전전하던 임준호를 만나 구출하고 중국 경제인으로 알았던 ‘첸 치야’가 실종된 이세원임을 알게 된다. 또한 태성그룹의 나태성 회장의 실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국이 되자 진짜 나태성을 살해한 후 나태성 행사를 한 요코야마 다께오라는 것이 밝혀진다.

두 편의 소설은 장편이기도 하지만 추리소설의 형식을 갖추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

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의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줄거리 자체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땅끝에서 오다』에는 전 세계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빼곡한 정보가, 『땅끝으로 가다』에는 아마추어 무선 HAM에 대한 촌촌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의 경우 소설을 꼼꼼하게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소설 곳곳에 성경 구절과 묵시의 예언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독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형식이 기독교문학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다. 이 두 소설의 화자는 각각 임준호와 요코하마 겐지로인데 이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오직 성경에 의존해서 기독교 사상을 접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비밀과 예언을 이해하게 되는데 복음의 크고 작은 비밀이 감추어진 보물과 같기 때문에 추리 소설 형식을 통해 비밀을 찾아가는 방식은 매우 훌륭한 차용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추리기법까지 동원하면서 밝혀내고자 한 실종의 비밀과 한 개인의 과거는 무엇이였을까. 김성일은 기독교적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걸맞은 해답을 내 놓으려고 한다. 김성일은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한다.

임준호의 평생 라이벌인 이세원은 조실부모한 후 외조모의 손에서 자랐다. 교육열이 뜨거웠던 임준호의 집과 달리 변변찮은 가정형편이었던 이세원이 언제나 임준호를 앞서 나가자 임준호는 자연스레 이세원을 향해 경쟁심, 질투심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 학창시절 모친의 치맛바람, 사교육으로도 메울 수 없는 능력의 차이를 경험한 임준호는 이세원이 이과를 선택하자 그를 피해 문과를 택할 정도로 이세원과는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리진물산’의 동기가 되고 엔지니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원이 되던 시절이었기에 공대 출신인 이세원은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회장의 최측근이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임준호의 구애를 한 몸에 받던 회장실 비서 문영실이 이세원의 부인이 되면서 임준호의 삶은 패배의 삶이 되고 말았다.

10) 김봉균은 이러한 김성일 소설의 특징을 추리 소설 기법과 여행 모티프를 통한 “대중적 호기심”과 태권도·콩푸와 같은 액션의 가미로 “시대적 특징”을 모두 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김봉균, 1997: 291).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어 온 준호가 왜 이 책을 읽지 않았던 것인지 이상했을 지경이었다. 모든 책들의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았다. …… “과연 이세원은 영리했었다.” 녀석을 실로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끼고 살아온 것이었다. 엉큼한 녀석이었다(김성일, 1983: 159).

모든 지식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거기에 있었다. …… (이러니까 세윈 이에게 늘 일등을 뺏겼을 수밖에)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세윈의 암기력이었다. 정말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절수까지 다 외어지는 것일까(김성일, 1983: 220).

그러다가 임준호는 비로소 이세윈의 성경을 통해 이세윈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세윈에게 성경이라는 보물단지,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던 이세윈이 일평생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 이치의 비밀을 더 빨리,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은 인간 여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능력임을 임준호는 고백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그에 따르는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다만 그 교리의 근원적인 의미와 복의 근본적 실체는 영과 육신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일뿐이지 그것이 육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 역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보았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은사’적 차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깊이를 해명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는 없다.¹¹⁾ 그런데 이 소설의 임준호는 자신에게 열패감을 주었던 ‘이세윈의 비밀’이 곧 ‘성경’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¹²⁾ 서두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세윈의 탁월한 능력이 이해 안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전제 역시 타당한 결론이다. 그

11) 한성기(2014: 78-81) 또한 칼빈은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 역시 개인의 영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철저하게 신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를 봐야 한다고 했다.

12) 김봉균은 성경이 소설의 핵심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독교신자에게는 믿음의 재확인 기회를, 비기독교인에게는 영적인 거듭남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독교에 무지한 이들도 “은연중 잠재적 성경 독자”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김봉균, 1997: 292). 성경과 성경 구절이 소설 진행에 핵심은 맞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성경으로 인해 ‘잠재적 성경 독자’가 될 것이라는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이다. 성경을 통해, 성경 해석을 통해 전해지는 기독교적 이미지는 매우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통해 암시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복과 성경을 통한 복의 접근을 근본적으로는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관이다. 복락(福樂)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환난(患難)이 인간의 의지로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매우 미묘하고 미세한 지점에서 이 부분을 간과한다. 성경을 통해 복락에 다가갈 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김성일의 이러한 신앙적 접근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드러난다.

누구에겐가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라서 준호는 마구 울화통을 터뜨리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이것이 신의 은총이란 말인가. 멋쟁이 아버지를 저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의 은총이란 말인가. 뭐 말라빠진 신의 은총인가(김성일, 1983: 107).

“이 책을 보물단지처럼 끼고 살아온 이세원에게 신을 무엇을 선물했는가? 골수암이라는 죽음의 병이 아니었던가…….”(김성일, 1983: 159)

임준호의 부친은 젊은 시절 멋쟁이로 통하면서 그 때문에 모친의 속을 부단히 썩이기도 했다. 그러다 나이 들어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꿈쩍 없이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며 역시 그 때문에 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임준호의 부모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젊은 시절에는 경험치 못한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세원은 병원에서 골수암으로 다리에 통증을 느꼈던 것이고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시급하게 다리를 절단해야 전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김성일은 임준호의 입을 빌려서 어쩌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 시련, 병의 고통, 환난에 시달려야 하는지 토로하고 있다.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아버지와 나대는 재미로 살아온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중풍은 오히려 은혜이며 축복이었던가. 준호는 다시 아득하게 미지의 벼랑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 그리고 보면 모든 인간이 걷는 환난의 길은 그것이 신의 인도를 받을 때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김성일, 1983: 100).

그렇지만 임준호는 이내 이러한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의 중풍이 되레 부부

의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시련과 환난 중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임준호가 시련 앞에서 주님을 찾아 그를 의지해서 고통을 통과한다면 그것이 곧 축복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 역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색하거나 낯설지는 않다. 다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고통과 시련을 비기독교 세계관의 ‘전화위복’ 내지 ‘고진감래’로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기독교적 신앙 위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고통 중에 희망을 기대하는 ‘고진감래’, ‘전화위복’이 곧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본다면 이는 기복신앙적인 해석일 뿐이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개인의 죄로 인해 기인할 수도 있고 주권자의 구원의 섭리를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다만 그 어느 것도 주권자의 절대적인 섭리라는 순종과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시련의 때 회복을 기대하지만 그 역시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세계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통과 환난을 납득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상황과 조건으로 자꾸 재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반영된 문학을 비로소 기독교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소설이 지닌 추리 기법의 의미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분명 감추어진 성경의 비밀, 즉 천국의 열쇠는 매우 비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리하는 이 소설의 형식이 유의미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의 보물이 코드화·암호화되었기에 소설 속 임준호가 항공기의 약어와 성경 관주로 이세원의 암호를 풀 듯이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절대 주권자를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김성일의 추리 기법에는 양가적인 의미가 있다.

Ⅲ. 기업의 성장론과 종말의 묵시론

2장에서 개인적 차원의 기독교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3장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성일은 소설 속 이세원처럼 공대 출신에 대우중공업 이사로 재직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에서 오다』와 『땅끝으로 가다』 모두 기업의 생리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¹³⁾ 그래서 그런지 김성일의 소설을 “기업 소설”¹⁴⁾로 부르기도 했다. 그만큼 기업의

이윤 추구 부분,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 등을 잘 그리고 있다. 기독교와 경제 성장이 어떻게 불지에 대해 김성일 나름의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¹⁵⁾ 김성일이 기업을 다루면서 한국형 대기업-다분야 진출 기업-인 ‘리진 물산’, ‘태성그룹’을 배경으로 한 것은 흥미롭다. 리진물산과 태성그룹 모두 20세기 말, 21세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개척하려는 기업의 분투가 잘 드러나 있다. 『땅끝에서 오다』의 리진물산은 위험지역이자 불모지로 여겼던 리비아에 공사권을 따 냈으며 『땅끝으로 가다』의 태성그룹은 UUU카드를 개발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전산화라는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소설 속 임준호와 요코하마 겐지로는 실종된 이세원, 임준호를 전적으로 찾아 헤매지 않고 회사가 그들에게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이들의 행방을 좇는 것으로 소설은 그리고 있다. 임준호와 요코하마 겐지로 모두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실종자 수색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들은 모두 기업의 업무와 그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 무사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 모두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문학에서 기업관, 경제관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리진물산이 중동지역을 새로운 거래처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이세원의 조언에 의존했다.

13) 1994년 대우중공업을 퇴사할 때까지 김성일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땅끝에서 오다’의 저자 김성일 장로의 서재를 가다>, 『국민일보』 2010. 6. 17.

14) <기업 소설 새 차원 아쉽다>, 『매일경제』 1983. 10. 19. 기사에서는 김성일이 기업소설적인 시도를 하지만 성취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 기독교와 자본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 상술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경제적·사회적 성공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깊이, 믿음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은 꽤나 뿌리 깊기도 하다. 막스 베버는 고도의 전문 기술과 자본을 획득한 청교도인들을 분석하면서 청교도인들이 가졌던 금욕적인 태도와 노동의 자기 절제적 성격 그리고 칼빈의 천직(天職)관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베버의 논의는 청교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청교도인들의 습성 중 일부가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속성임을 분석한 것이다. 즉 모든 청교도인들이 반드시 자본가가 되거나 전문 기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본가와 전문 기술인들 중에서 청교도인들이 많으며 그들의 종교관과 생활습관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한다(Max Weber, 김현욱 역, 2009).

“내게 리비아 진풍의 아이디어를 준 것은 이 부장이었어. 그는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세대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임 대리는 그것을 잘 정리, 요약하여 내가 서울에 다녀온 다음 브리핑하도록.”(김성일, 1983: 190)

“위험한 곳에 이득이 있다는 비즈니스의 원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리비아는 석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다른 기업들이 감히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없었으며, 소련이 격동되지 않는 한 아직은 전쟁의 위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김성일, 1983: 215)

이세원은 리비아가 신시장지이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가 그토록 리비아 시장을 신뢰했던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 1980년대 중동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마음 놓고 무역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정치적·사회적 안정만 보장된다면 개발이 덜 된 중동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그렇지만 그 ‘안정과 안전’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진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세원에게는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은 종말의 묵시로 가득했다. 성경에 능통한 것으로 설정된 이세원이 종말의 묵시를 바르게 독해한 후 그에 맞춰 리비아 진출을 추진했다는 설정은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박정희체제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원칙 하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의 신시장지를 개척했고 전두환 정권 들어서 중동은 우리 산업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기업의 성장과 개발은 박정희체제 이후 반공을 기반으로 한 안보와 더불어 제1의 원칙이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성경의 종말 묵시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된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묵시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청지기·순례자로서의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성일은 이 종말에 대한 묵시를 철저하게 기업의 이윤 창출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업의 발전론, 성장론에 대비시켰다. 그래서 리진물산의 리비아 진출은 필히 성경에 묵시된 종말의 때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경제적 파국에 직면한 구라파 공동체가 유대인들의 자금력을 의지하려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시체가 산을 이루는 소련과 아랍 연합군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인류의 4분의 1일 사망하게 됩니다.”(김성일, 1983: 214)

“이집트는 위급할 때에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집트를 구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집트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공의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빛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엑소더스를 돕기 위하여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신 일입니다. …….”(김성일, 1983: 215)

“ …… 그렇습니다. 최근 이집트는 소련의 모든 외교권을 추방하고 단교하였으며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에스겔서 38장의 소련 연합군에는 이집트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김성일, 1983: 215)

이세원 부장의 실종 이후 리비아 사업은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임준호가 이세원의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본 리진물산 회장은 이세원이 성경에 있는 종말의 묵시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놓은 것처럼 임준호도 종말의 묵시를 분석해서 리비아에서 내일의 사업을 예측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임준호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성경에 묵시된 종말의 징후를 위의 인용처럼 풀었다. 인류가 시작된 이스라엘 땅에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데 아랍 지역과 소련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면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이며 최후의 전쟁인 아말겟돈 전쟁이 발발할 조짐이라는 성경적 해석을 내 놓는다. 그래서 리진물산의 리비아 사업은 소련이 아랍과 연합할 때이므로 소련을 주시해야 하며 설혹 매우 긴박하게 소련과 아랍이 손을 잡았다 해도 안전지대인 이집트가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성일이 임준호의 입을 빌려 종말의 때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해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참이나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¹⁶⁾ 종말론적 묵시를 기업의 이윤 창출로 연결 짓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다. 또한 종말의 묵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면서 살아계시는 주님에 대한 확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김성일은 그 종말의 묵시를 리진물산의 신시장 개척과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활용하고 있다. 김성일의 이러한 성경적 해석관은 우리나라의 도시화·산업화·근대화 시기 경제성장제일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면서 기독교를 복의 종교, 성장의 종교, 잘됨의 종교로 인식하는 일부 기복적 신앙관의 반영이기도 하다.

“ ……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전세계 테러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막강한 자금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인민들에게 UUU 카드를 보급할 것이

16) 종말의 묵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단일하게 정리·정돈되지도 않았다. 계시록은 상징과 징후로 되어 있어서 분명한 시기와 장소를 암시하는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일의 계시록 해석도 김성일 버전의 해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며,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이들을 총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일상 행동은 모두 컴퓨터에 기록될 것이고, 이들은 컴퓨터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지구인의 이마에 넘버를 박아 넣는 일입니다.”(김성일, 1991: 113)

『땅끝으로 가다』에 등장하는 ‘태성그룹’ 역시 성경이 그리는 종말적 목시를 기업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인 UUU 카드를 개발하고자 한다. 성경이 그리는 종말적 목시라는 것이 인류에게는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종말의 끝에 다다른 인류 최고의 문명을 만날 수 있다는 발상인 것이다. 오늘보다 먼 미래로 그려진 종말의 때에는 오늘날보다 더 발달된 인간 문명이 있을 것이며 그 미래를 당겨 오늘날 현실화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기업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물론 김성일은 태성그룹이 계획하는 UUU 카드가 인간지배, 신을 저버린 인본주의의 극한임을 비판적으로 그리고는 있다. 그렇지만 성경이 자본의 이동, 기업 아이템의 향방을 결정해주며 이윤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고방식은 기복적인 신앙관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문학이라면 이러한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경 해석 및 적용은 보다 더 비판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IV. 민족의 회복과 미완의 기독교 공동체

이 장에서는 개인·기업과 기독교적 세계관 사이를 앞 장의 연장선상에서 민족과 기독교 공동체를 조명하고자 한다. 김성일은 소설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의 기술 문명과 내일의 새로운 블루칩을 잘 녹여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식민, 분단, 민족 등과 같은 묵직한 이야기도 함께 녹여내고 있다. 김성일이 다루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크게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의 역사와 이념 대립으로 분단된 남북의 문제이다. 근현대사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민과 분단을 기독교문학 안에 그것도 추리 소설 기법으로 녹여냄으로써 기독교문학의 새로운 무게를 더하고 있다. 기독교문학이 개인과 신의 관계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죄와 구원의 문제는 선명해지는 반면 사소설적 경향을 띠거나 간증과 같은 개인경험담에 그칠 수 있는데 김성일은 민족적 문제를 소설에 잘 녹여냄으로써 한국기독교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의가 분명히 존재한다.

『땅끝으로 가다』에는 태성그룹의 ‘나태성 회장’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빠른 시간 동안 고속 성장한 그룹의 총수가 실은 진짜 나태성을 살해한 요코야마 다께오이며 진짜 나태성은 인도네시아로 강제 징병된 한국인이었다. 요코야마 다께오는 일본군이 우세를 떨치자 인도네시아를 급히 빠져나가느라 미처 빼내가지 않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금괴를 찾다 윌리엄슨 목사 부부와 그들을 보호해 줬던 인도네시아인 까따르시마 부부, 나태성을 살해했지만 끝내 금괴를 얻지 못했고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나태성의 어린 딸을 데리고 일본으로 귀국 후 16세가 된 나태성의 딸 사이에서 『땅끝으로 가다』 화자인 요코야마 겐지로를 낳았다. 그 후 요코야마 다께오에게 “NEMENEME”라는 의문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그는 한국으로 가서 나태성의 행세를 하며 태성그룹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요코야마 다께오라는 일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 영국인 목사 가정, 인도네시아 까따르시마 가정 그리고 한국의 나태성의 가정까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인해 힘없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그 먹이가 되었다. 김성일은 일제 강점기의 잔혹한 역사가 대를 이어 불행을 만들며 하나님은 그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심으로써 회복시키심을 소설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손을 들어 입구 쪽의 벽을 가리켰다. 하얀 벽지가 도배되어 있는 그 벽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뱀이 기어간 것처럼 꾸불꾸불했지만 분명히 영문자로 적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neme neme(김성일, 1991: 89).

먼저 목사 부인이 사살되고 결국 윌리엄슨 목사도 사살되었다. 윌리엄슨 목사는 터져나오는 피로 벽에다가 NEMENEME, 여덟 자를 쓴 다음 눈을 감았다(김성일, 1991:291).

다니엘이 해독한 분벽의 문자는 『네네네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고 그 뜻은 이러했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으며 너의 나라는 둘로 나뉘어서 타인에게 넘어가리라(김성일, 1991: 268-269).

다께오를 따라다니는 ‘네네네네’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바벨론 왕국을 향한 징벌로 악한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국주의 일본을 등에 업고 저지른 다께오의 악행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 매우 정확하게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일은 하나님께서 다께오에게 내린 심판이 아들에 의한 총살이며 악인 다께오와 그 아들 역시 죽음으로써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민족의 상처, 개인의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기독교는 회복과 치유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한 심령과 찢긴 마음을 싸매고 보듬어서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일제 강점기의 치욕과

울분을 기독교문학 안에서 치료하는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념대립으로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은 아픔 그 자체이다. 김성일은 이 부분 역시 간과하지 않았는데 『땅끝에서 오다』의 이세원 일가를 통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이세원의 실종 뒤에는 북에서 온 공무원이 있다는 암시를 계속 해 주고 있다.

남편 최중훈과 장남 최기원이 6·25가 발발한 1950년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그 해에 태어난 둘째 아들은 무슨 까닭인지 자기의 성을 붙여서 이세원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세원의 형인 최기원이라면 이것은 혈연을 이용하여 포섭공작을 하는 북쪽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김성일, 1983: 199).

내 형 최기원은 즉시 나를 포섭하기 위하여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잠입하였다. …… 그러나 형은 나를 포섭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설득을 당했다(김성일, 1983: 335).

내 형에게 나는 다시 북으로 갈 것을 부탁했다. …… 나는 형에게 부탁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빛을 그 땅에 전하라고 나는 형에게 부탁한 것이다(김성일, 1983: 340).

이세원의 모친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사상에 경도되어 월북을 감행한 남편을 따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세원은 모친과 함께 남한에 이세원의 부친과 형은 북한에 정착하면서 분단이 곧 가족 해체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세원이 신무기 보관 장소인 미로를 개발하면서 그의 형이 북한 공무원으로 이세원에게 접근했고 이세원은 그런 형을 설득해서 복음을 받아들일게 했다. 김성일은 이세원과 그의 형 최기원의 관계를 통해 이념은 복음의 진리 앞에, 기독교 세계관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 갈등도 복음 안에서는 공존할 수 있으며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성일이 일제 강점기의 우리 역사에서 남북 분단의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민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개화기 때 한국기독교가 민족 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었다.

김성일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땅끝으로 가다』는 땅 끝에 선 복음 전파가 주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전반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며 종내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로마까지 소설 속 인물들의 여정도 이어지고 있다. 즉 김성일은 그의 소설을 통해 지리적·민족적·국가적 복음 전파가 아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만인의 그리스도 제자 삼기, 만인의 형제·자매되기를 간파한 측면이 있다. 바울 전도의 핵심은 보편적인 주체를 통한 예수의 제자 되기이며 이때 예수의 제자는 ‘중간항도 매개도 없는’ 보편적인 주체를 실현하다(Badiou, 2008: 47).¹⁷⁾ 보편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헬라인, 히브리인의 구분이 필요가 없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다면 그 속에서 민족,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구별짓기는 무의미할 뿐이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모티프로 삼은 만큼 그 속에서 일제 강점기의 이품과 남북 분단의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회복과 해결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입장의 회복과 치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기독교문학이 바울의 행적, 바울의 전도 여행이 소설의 주요 모티프가 된다면 진정한 바울의 사역에 대한 사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한국적 기독교문학의 의의와 한계

김성일의 기독교문학이 우리나라 기독교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평가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김성일만큼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도 드물 뿐만 아니라 분명한 기독교 신앙관에 입각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만큼 김성일이 한국기독교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중요한 김성일이 중요한 작가라는 것이다. 실제 김성일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만의 독특한 기독교 문학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경 인물을 새롭게 조명한다든지 성경적 사건에 문학적 색채를 입혀 미학을 더하는 등의 작가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추리기법과 같은 기독교문학 안에서도 독창적인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기독교문학이 갖는 단조로움을 피하는 한편 문학의 미학을 확보하기도 했다. 뿐만 아날 김성일 자신이 기업인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여느 기독교문학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문화나 문명을 소개함으로써 소설적 재미를 더하는 등 한국기독교문학 안에서 김성일 소설의 의미를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김성일 소설은 ‘한국적’ 기독교문학의 자장 안의 영

17) 알랭 바디우(Badiou, Alain)는 사도 바울의 ‘보편주의’를 통해 이방인, 이민족에게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독교문학은 문학을 통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조명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재림의 주님을 목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적 기독교 상황에서 기독교는 개화기의 계몽주의부터 근대화시기 경제성장론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잘된다라는 식의 기복신앙이 결합되어 있다. 기복 신앙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 한 기독교 복음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성일이 보이는 문학에서도 개인의 복락과 사회, 기업의 성장·발전을 기대하고 기대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보다 더 성숙한 한국기독교문학을 위해 민족 중심, 국가 중심, 가정 중심의 기독교가 아닌 바울이 보여 주었던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문학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문학론을 따라가지 못하는 빈곤한 문학 작품이다. 빈곤하다는 것은 그 수적 열세와 깊이 모두를 의미한다. 기독교문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기독교문학 작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성일 (1983). 『땅끝에서 오다』. 홍성사.
_____ (1991). 『땅끝으로 가다』. 홍성사.
김병학 (2004). “한국개화기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김성건 (2012).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5-54.
김세령 (2012). “195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론 연구.” 『신앙과 학문』. 17(3). 7-33.
김순덕 (1997). “김성일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김종배 (2002). “김성일 소설과 기독교적 세계관.”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희보 (2010). 『한국기독교문학 연구총서1』. 서울: 박문사.
양진오 (2004). “기독교 수용의 문학적 방식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어문학』. 83. 277-304.
윤영수 (2006). “김성일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구원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이상설 (1999). 『한국기독교 소설사』. 서울: 양문각.
전영택 (1959). “기독교 문학론.” 『기독교사상』. 21.
조경덕 (2010). “기독교 담론의 근대서사화 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차봉준 (2008). “한국현대소설의 성서 모티프 수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최은주 (2005). “한국 기독교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한성기 (2014). “기독교적 관점의 경제윤리.” 『신학지평』. 27. 63-88.
Badiou, A. (1997). *Saint Paul*. 현상환 역 (2008). 『사도 바울』. 서울: 새물결.
Brunner, E. (1955).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 전택부 역 (2007). 『정의와 자유』. 대한기독교서회.
Weber, M. (1905).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현욱 역 (2009).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동서문화사.

통계청 자료

- 연합뉴스 2015. 2. 12.
연합뉴스 2003. 6. 17.
문화일보 2010. 3. 10.
국민일보 2016. 2. 2.
국민일보 2010. 6. 17.
동아일보 1991. 10. 8.

Abstract

Study on the Christian values Found in Kim, Sung-II's novels

Kyong-Mi Kw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thesis, a study on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in Kim Sung-II's novels was performed. His early novels are significant in that the author's Christian view of the world can be seen and that the Korean-style Christian faith and culture blend together well in his Christian view of the world. Hence the thesis intended to look at his Christian view of the world as well as the Korean-style Christian faith and culture through his novels.

In the novels set in the 1980s, it is seen that non-Christians' getting to know 'God-Christianity' was done in the way that they longed for individual prosperity, companies' good fortune, and ethnic restoration. Individual prosperity is based on faith for blessing, such as my family's happiness, the restoration of my family member's health, and healing an individual's insecure state of mind. And in corporate aspect companies' continuing success is recognized as the core of the Christian literature, with the economic growth-first principle and the modern economic growth theory taking precedence over others. By doing so, a kind of centrism that puts happiness and comfort in the center (that means that if you go to church and believe in Jesus, everything you do will be successful) is shown. The premise that Christianity's image non-Christians can think of and imagine is quite based on success and prosperity largely excludes thorough self-reflection based on faith, which can be his characteristic as a Christian author, but is the reality of Korean Christianity and shows a cross s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hristian literature.

The thesis classified his novels according to individual aspect, corporate aspect, and ethnic aspect and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28 『신앙과 학문』. 21(2).

perspectives of faith that are shown in each aspect.

Key Words: Korean Christian literature, Kim Sung-II, faith for blessing, growth,
healing and recovery